

김용석 대광위원장, “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로 한-아세안의 지속가능한 교통협력 강화” 강조

- 20일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서 교통협력 로드맵(2026-2030) 논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1월 20일 영상으로 개최된 “제16차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”에 참석하여,
 - 인공지능(AI)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 강화와 향후 5년간 한-아세안 교통협력의 방향을 제시할 ‘한-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(2026-2030)’ 채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올해로 16회를 맞는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'09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어,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* 간 교통 인프라 개발, 인적 역량 강화, 기술협력 등 교통분야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협의체로 자리매김해왔다.
 - *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동티모르, 베트남 등 11개국
-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“오늘 채택하는 ‘한-아세안 교통 협력 로드맵(2026~2030)’은 디지털 전환, 스마트 모빌리티, 친환경 교통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어 아세안 협력의 기반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한국 정부는 스마트시티, 자율주행, ITS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회의 참가국들은 한-아세안 교통협력이 그간 역내 연결성 제고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데 공감하며, 새 로드맵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·친환경 교통·AI 기술 적용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.

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<총괄> |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통상담당관 | 책임자 | 과 장 권유정 (044-201-4389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이정훈 (044-201-3306) |